

2006 벤처농업박람회

Agriculture Venture Expo 2006

충남도청행정자료실

AM016559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2006벤처농업박람회추진단

장서
등록번호
16559
등록일 년 월 일
충청남도행정자료실



꽃과 과학, 문학, 예술이 어우러지는…

2006 벤처농업박람회

Agriculture Venture Expo 2006



꽃과 과학, 문학, 예술이 어우러지는…

2006 벤처농업박람회

Agriculture Venture Expo 2006



Contents

:: 벤처농업 박람회에 대하여 8

2006벤처농업박람회 개요
벤처농업박람회 준비에서 개최까지
벤처농업박람회 성과
벤처농업박람회와 충남농업기술원
벤처농업박람회 CI
개장 · 개막 행사

:: 주전시관 32

아벡스관
초록농업관
신기술개발관
희망농업관
친환경농업관

:: 시 · 군의 날 81
:: 식물터널 98
:: 분재 전시관 100
:: 특색식물 · 향기식물 전시관 102
:: 기업홍보 전시관 110
:: 어린이날 행사 114
:: 생활체험마당 120
:: 정크아트 124
:: 동물가족 체험장 129
:: 도우미 · 자원봉사 132
:: 공예 138
:: 3D 입체영화 139
:: 학술행사 140
:: 박람회 이모저모 142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농업인 여러분의 저력 신뢰



우리 농업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제시한 2006 벤처농업박람회의 벅찬 감동을 담은 기념화보집이 발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4월에 개최된 2006 벤처농업박람회는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감동의 축제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농업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식 · 기술 ·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농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박람회는 당초 예상했던 20만 명의 관람객을 훨씬 초과한 35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총 6억30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은 벤처농업인의 피나는 노력은 물론, 예산군민과 도민 여러분,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 언론의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이를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으며, 새로운 도약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박람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일 것입니다.

이 책자에는 지난 10일 간의 가슴 벅찬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그 날의 감동을 되살려주는 역사적인 기록물로, 그리고 농업인 여러분께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소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2006년 5월

충청남도지사권한대행 · 2006벤처농업박람회대회장 유 덕 준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위기의 농업 발전 밑거름 되길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우리고장 예산에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한국 농업! 새로운 도전과 희망!' 이라는 주제 아래 '2006 벤처농업박람회' 가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호박식물 터널과 가지나무 등 이색 식물과, 소원 꿈나무, 색동 누에, 동물가족 체험장 등은 관람객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모든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된 농업관련 박람회에는 전국의 86개 벤처농업 관련 업체가 참여하여 우리 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했으며, 지식 · 기술 ·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서 농업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이번 박람회는 우리 200만 도민의 가슴 속에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벤처농업박람회의 다양한 내용과 표정을 담은 화보집은 우리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을 담은 소중한 자료입니다. 이번 행사를 관람하신 분들은 물론 부농을 꿈꾸는 농업인들과 농업에 뜻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충남의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을 선도하고, 세계속의 한국 농업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동안 박람회 홍보와 보도 등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준 대전일보사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2006년 5월

충청남도의회 의장 박 동 윤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한국농업의 가능성 보여줬다!



농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이 선택해야 할 길을 제시하고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6벤처농업박람회를 '한국농업!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최했습니다.

농업과 과학 · 문화 · 예술 그리고 꽃이 어우러진 21만평의 박람회장에는 행사기간 동안 총35만 1천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다양한 벤처농업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신기술과 신농업 등 벤처농업의 다양한 소재를 보고 느끼는 체험과 감동의 기회였습니다.

21세기 한국농업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게 사실입니다. 젊은 층이 도시로 떠나 인구가 줄고, 학교도 속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이렇다 할 일자리도 없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봐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열린 벤처농업박람회는 농업 · 농촌이 나아갈 돌파구를 보여주고 우리 농업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하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롭고 의욕적인 시도가 충남농업 아니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믿습니다. 충남도민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벤처농업박람회 추진단원, 자문위원, 지원단 그리고 성공적인 벤처농업박람회를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5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 2006벤처농업박람회추진단장 최 성 호

발간사 Issue Address



한국농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준 '2006 벤처농업박람회'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막을 내렸습니다.

충남 예산 충남농업기술원 21만평 박람회장에서 2006년 4월28일부터 10일간에 걸쳐 개최된 벤처농업박람회는 '한국농업!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첨단 신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다양한 사례들을 선보여 농민과 일반 국민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20만 명의 관람객 유치목표는 35만1,300여 명의 관람객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TV생중계와 중앙, 지방신문들의 보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져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다년생 가지나무와 토마토나무에 수백 개의 열매가 매달렸고 위에는 배추, 뿌리는 무로 된 새로운 야채, 아름다운 색깔의 호박터널, 빨갛고 노란 색동누에와 누에고치 등 수많은 신기술들이 농업에 접목되어 농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농작물들의 다양한 모양과 현상의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아 화보집으로 엮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벤처농업박람회가 막을 내린 뒤 대부분의 전시관이 철수되었습니다. 다행히 박람회의 생생한 모습을 화보집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헌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발간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06년 5월

대전일보사 사장 조 준 호



2006 벤처농업박람회 개요

꽃과 과학 · 문화 · 예술이 어우러진 '2006 벤처농업박람회'는 2006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10일 동안 열렸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365번지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이 박람회는 충남도와 농협이 주최했다. 주관은 충남농업기술원과 (재)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맡았다. 농업박람회인 만큼 농업 관련 기관 · 단체가 후원에 나섰다. 농림부 · 농촌진흥청 · 농민신문사 ·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 (사)생활개선중앙회 · 한국4-H중앙연합회 · 한국벤처농업대학 등이다. 또 충남교육청과 예산군 · KBS · 한국관광공사도 후원했다.

박람회 주제는 '한국농업!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었다. 영문표기는 'Agriculture Venture Expo 2006'이며 약어로는 'AVEX 2006'으로 표기했다. 우리농업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새로운 농업에 대한 밝은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소비자와 직접 만남을 통해 벤처농업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박람회 개최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박람회 마스코트는 '콩이'와 '삭이'로



정했다. 오곡 가운데 콩과 쌀을 친근한 형태로 의인화시켜 농업과 접목된 미래정보기술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콩이'의 경우 콩은 고단백이며 건강식품으로 널리 애용되고, 긍정적인 표현에 두루 사용된다는 점에 착안했다. 또 곡식의 꽃이 피고 꽃대의 끝에 열매가 더부룩하게 열리는 이삭을 뒤집어 표현한 말이 '삭이'다.

박람회는 전시와 함께 특별 · 체험 · 상설 · 학술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전시관은 크게 주전시관과 부전시관으로 마련됐다. 주전시관은 AVEX관 · 초록농업관 · 신기술개발관 · 희망농업관 · 친환경농업관으로 구성됐다.

AVEX관은 500평 규모로 농업발전에 기여한 인물, 농업과 문화, 미래농촌의 모습, 농업 관련 설치작가의 작품이 연출됐다. 초록농업관은 벤처농업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전통농업의 위기를 이해하는 한편 농업명품으로 농촌도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도록 꾸몄다. 선택과 집중으로 육성된 지역특화작목을 전시한 곳이 신기술개발관이다. 이곳에서는 농업연구기관의 연구성과와 신기술 개발 사례및 사계절 사과, 무추, 토감, 장기재배고추 등이 전시되었다. 전국의 대표적인 벤처농산물과 그 벤처농산품의 생산 · 가공 · 유통의 모델이 전시된 곳이 희망농업관이다. 친환경농업을 이

해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사례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양한 볼거리와 농촌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부전시관이다. 부전시관은 충남 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과 기업홍보관·분재 및 특색화분전시장·동물가족전시체험장·향기식물 및 생활원예관 등으로 나누었다.

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앞에는 시·군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분위기를 띄웠다. 우수특산물과 벤처농특산물이 각각 90종씩 소개됐다. 농업 관련 기업들이 제품을 전시하도록 꾸며진 관이 기업홍보관이다. 분재관에는 분재·수석·분경 등이 대거 선보였고 특색화분 전시장에는 거봉포도 착색과 화분, 4계절 무화과 화분, 인삼홍숙분 등을 선보였다. 동물가족전시체험장에는 유산양과 면양 등 특수가축, 은세종과 금수남 등 관상대조류, 희귀애완동물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학술대회도 빼놓을 수 없는 박람회 프로그램이었다. '벤처농업포럼' '농촌관광 심포지엄' 'BT의 농업적 이용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벤처농업포럼'에서는 동북아 농업의 방향과 벤처농업, 농업의 가치 재정립, 농업과 문화마케팅, 개별벤처농업의 성공사례가 소개됐다. 농업 및 관광 관련 종사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농촌관광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학술대회



가 '농촌관광 심포지엄'이었다. 'BT의 농업적 이용 세미나' 참석자들은 BT를 활용한 농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유통 및 관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보화능력을 지닌 우수농업인을 선발하기 위한 '정보화촉진경연대회'도 많은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을 이끌어냈다.

개최 취지와 의의

2006 벤처농업박람회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농업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농업인과 관람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개최됐다. 그 경쟁력의 거름은 바로 '벤처농업'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람회추진단측은 농업인에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방향을 제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기존의 농업방식이 자본투입에 치중한 반면 앞으로의 방식은 지식농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설 땅이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박람회 프로그램도 자연히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또 다른 개최 배경에는 농업 부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소득원이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농업인들에게 그 가능성을 제시하자는 것이 벤처농업박람회 개최 배경인 것이다.

충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테크노파크를 만들었다. 충남농업테크노파크는 새기술 지식정보농업







을 기반으로 충남농업을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육성,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설립됐다. 박람회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21C형 농업모델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충남농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돈이 되는 농업'이 실현된다는 꿈도 담아냈다. 대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상공업 측면에서 언급돼왔다. 하지만 농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엿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박람회를 기획한 것이다.

박람회는 농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표출했으며 그 대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농업도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고객지향, 정부보호의 의존적 자세에서 시장경쟁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시장지향, 농업의 경쟁력확보와 고수익농업모델 창출을 위한 농업주체들의 네트워크화를 강조한 행사가 2006 벤처농업박람회였다.

박람회 연표

2002년

8. 16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 8대 핵심과제로 선정

2003년

4. 07 기본계획용역(안) 수립

7. 21 기본계획 연구용역 계약(한국벤처농업포럼)

12. 1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04년

4. 6 박람회추진기획단 구성(6명)





4. 29 중앙투자심사 승인(행정자치부)
5. 21 박람회 기본계획 확정
8. 20 박람회추진단 구성(상근 11명, 비상근 8명)
9. 16 박람회추진계획 1차 설명회
10. 28 행사실시설계용역 착수
11. 3 홈페이지 구축(www.avex2006.com)
12. 18 영구전시관 도유재산취득 승인(도의회)

2005년

1. 7 농업공원 실시설계용역 시행
2. 23 박람회 표상물 상표권 출원
3. 7 주제전시관(아벡스관) 설계업체 선정
3. 25 박람회 행사 실시설계 완료
3. 29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농협충남지역본부)
4. 28 D-365일 기념심포지엄 개최
5. 31 아벡스관건축 및 전시·연출 중간용역보고회
8. 12 휘장사업 참가안내서 발송(440개 업체)
8. 31 예산군 지원단과 추진계획 합동보고회
9. 8 영구전시관 신축공사 착공
9. 21 입장권 디자인 확정, 전기시설설계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10. 17 아벡스관 전시연출공사 착공
10. 20 입장권 인쇄(8종 33만매)
11. 25 정문확장 및 동선확장공사 완료

2006년

1. 10 초록 · 신기술개발관 설계 중간보고회
2. 6 (주)제이비컴과 행사실행 대행사 계약
3. 13 범도민 지원단 위촉식
4. 21 자원봉사자 발대식
4. 26 아벡스관 개관
4. 28 2006벤처농업박람회 개막

벤처농업박람회 준비에서 개최까지



2006 벤처박람회추진단은 크게 관리본부 · 전시본부 · 시설본부로 나눠 박람회 성공개최를 준비했다. 관리본부는 다시 총괄운영부 · 홍보수익부로, 전시본부에는 전시연출부 · 전시유치부 · 포장조성부로 세분화해 박람회 개장에 만전을 기했다.

추진단측은 우선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유치 · 수입사업과 홍보에 전력을 쏟았다. 성공 개최의 최대 관건은 완벽한 박람회장 조성에 있다고 보고 이에 매진했다.

추진기반 구축 단계에는 주행사장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얻고, 회장조성과 전시연출 · 회장운영 등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또 5 · 31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결과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선관위로부터 얻어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 120명을 모집하고 (주)제이비컴과 행사실행대행 계약을 완료하는 등 기반구축을 완료했다.

한편으로는 유치 · 수익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농협과 공동개최키로 하고 후원 기관 · 단체를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사)한농연 등 12개로 늘렸다. 추진단측은 8종 33만매의 입장권을 제작해 농협충남지역본부와 입장권 판매대행협약을 맺었다. 엠블렘과 마스코트 · 로고 등을 사용할 휘장사업 업체도 선정했다.

추진단측은 홍보활동에도 강화했다. 리플릿 2종 2만매와 스티커 4000매, 포스터 1만매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발송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등 25개 기관에 링크시켰다. 언론매체와 다른 박람회에도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학술회의를 개최, 벤처농업박람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만1000평의 농업공원 조성을 끝내고 정문 및 차량출입동선도 확장했다. 주행사장에 대한 토사성토와 배수로 복개, 임시전시관 및 체험행사장 구획정리, 전기시설과 통신시설도 차례로 마무리했다. 행사장의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유채원 · 청보리원 · 튤립원 · 약초원 · 식물터널도 개화시기 등에 맞춰 완료했다. 2006 벤처농업박람회에 대한 완벽한 개장준비를 마친 것이다.



벤처농업박람회 성과



관람객들의 반응

2006 벤처농업박람회에 대한 관람객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진단측은 당초 관람객을 20만 명으로 잡았다. 이 정도면 '대성공'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관람객 입장이 예상치를 훨씬 넘어버리자 추진단측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밖에 없었다.

추진단측이 더욱 즐거워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한마디로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한 예로 박람회 목적인 한국농업의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한 농업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박람회를 관람한 한 농업인 부부는 귀가 후 "우리 마을 사람들도 이 박람회는 반드시 봐야한다"며 마을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왔다. 농업인만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차린 것이 아니다. 다른 분야의 사업자들도 농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속속 박람회장을 찾았다.

또 박람회가 끝난 이튿날 충남농업기술원 직원들은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박람회가 끝났는 데도 관람하겠다고 찾아온 이들을 설득하느라 애를 먹은 것이다. 그만큼 벤처농업박람회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미처 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아쉬움을 남긴 박람회로 기록됐다.

2006 벤처농업박람회는 주최측이 계획했던대로 한국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고 관람객들은 이를 충분히 인식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람회 개최 결과 - "벤처농업의 가능성 보여줬다"

2006 벤처농업박람회는 '성공작'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추진단측은 관람객입장을 20만 명으로 잡았다. 개장기간이 10일이라서 목표달성에 회의적이기도 했지만 2일째 6만여 명, 5일에 11만여 명이 입장해 2일을 남겨놓고 30만 명을 넘어섰다. 최종집계 결과 35만여 명이 박람회장을 찾았다. 수익도 목표인 5억 5000만원을 넘어 6억3000만원을 달성했다.

새로운 벤처농업 방향을 제시하여 농업인의 대응능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성과를 거뒀다. 농업인은 물론 농업을 배우는 고교 및 대학의 학생, 농업관련 제조업 및 유통업자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은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 벤처농업박람회는 '지식 · 기술 ·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한 비즈니스 창출 및 구축'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최초로 열린 벤처농업박람회지만 충남 시 · 군은 물론 전국의 86개 벤처농업 관련 업체가 참여해 '우리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중에는 자신이 생산해내는 농산물을 '명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농업인들이 돋보였다.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강력한 자극을 줬기 때문이다.

벤처농업박람회는 농업 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벤처농업박람회는 그동안 예산군에서 개최된 행사중 최대규모다. 행사초기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자원봉사자와 경찰 · 소방서등 유관기관의 협조는 박람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되게 한 또 다른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벤처농업박람회와 충남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게 된 동기

벤처농업은 도전과 모험의 정신으로 틈새시장을 노리는 역발상 아이디어 창업농업으로 정의된다. 벤처농업은 기존의 기술농업과 차별화되는 농업개념으로 신생(New born), 소자본(Small capital), 고위험(High risk)의 특성을 갖는 기존의 벤처기업과 그 개념을 같이 한다. 따라서 실패의 위험은 있다. 그러나 새롭고 어려운 농산품을 생산하는 기업, 기존의 농산품에서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는 창조적인 기업, 벤처정신으로 농업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농업인이란 매력적인 특성을 함유하고 있다.

한국농업의 발전과 풍요로운 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그 길을 제시하고 도전하고 있다. 이런 의미만으로도 벤처농업박람회를 충남농업기술원이 개최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농업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벤처농업의 육성과 확산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전국 최초로 벤처농업박람회를 개최해 벤처농업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 학생에게 알렸다. 인적 물적 환경적 요건을 두루 갖춘 농업기술원이 국내외 벤처농산품을 홍보, 전시, 판매하는 박람회를 열어 농업인들에게 벤처농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충남을 우리나라 벤처농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선도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업기술원 개요

충남농업기술원은 충남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 보급, 품질 고급화 및 경영비 절감에 역점을 두면서 수출농업 활력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쌀 자급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앞선 과학영농으로 농업발전을 선도해왔다.

충남농업기술원은 1910년 2월 농상공부 직할 공주종묘장으로 출발했다. 1998년 10월 충남농업기술원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술개발국 · 기술보급국 · 총무과 · 농산물원종장 · 잠사곤충사업장 등의 기구로 구성돼 있다. 기술개발국에는 작물연구과 · 원예연구과 · 생물환경과 · 교육정보과가 있다. 또 논산 딸기시험장 · 부여 토마토시험장 · 청양 구기자시험장 · 예산 국화시험장 · 태안 백합시험장 등을 두고 있다. 또한 기술보급국은 작물지원과 · 원예축산과 · 생활개선과를 두고있다.

이들 부서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농업기술 개발보급,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우량종자 · 종묘 · 종축 · 잠종 생산보급 등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21C 농업의 경쟁력 구축에 앞장서 온 것이다.

예산군은?

예산군은 충절의 고장이다. 매헌 윤봉길 의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윤의사를 모신 충의사는 예산의 수암산 · 덕숭산 · 가야산 기슭에 에워싸여 있다.

예산군은 '의좋은 형제'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의좋은 형제'는 실존인물이다.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에 살았던 이성만 · 이순 형제의 돈독한 우애를 기리는 뜻에서 붙여졌다.

예산의 특산물은 단연 사과다. 사과를 주재료로 한 잼 · 한과 · 통조림도 유명하다. 꽈리고추 · 쪽파 · 토마토 · 오이 · 수박 · 더덕 · 애호박 등도 생산된다.

예산군의 젖줄은 예당저수지다. 예산군 및 당진군에 걸친 넓은 홍문(鴻門)평야를 관개하기 위하여 1929년 4월에 착공돼 63년에 완공됐다. 이 저수지 물을 이용해 생산한 삽교의 황금쌀은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예산군에는 이밖에 추사 김정희가 어린 시절을 보낸 추사고택, 목조건물이 아름다운 천년고찰인 수덕사, 한국건축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한국고건축박물관, 덕산온천 등의 관광자원이 자랑거리다.

예산군은 최근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로 결정돼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벤처농업박람회 CI



엠블렘 EMBLEM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천문기상관측시계인 혼천의(渾天儀)를 바탕으로 하여 첨단과학기술의 농업적 이용을 의미. 미래벤처농업의 방향과 비전을 표현함.

녹색원은 지구, 적색원은 IT와 BT, 청색은 벤처농업인, 주황색은 우리농업의 미래의 희망과 꿈을 나타냄.



마스코트 MASCOT

오곡중의 하나인 콩과 쌀을 IT와 BT가 접목된, 친근하고 귀여운 형태의 이미지로 의인화시켜 형상화함.

2006 벤처농업박람회
Agriculture Venture Expo 2006

로고타입 LOGOTYPE

붓글씨 스타일의 로고체로서 우리농업의 전통성과 벤처 정신의 이미지를 함께 표현.



개장 · 개막 행사



메인 게이트 앞에서 열린 개장 테이프 커팅식


Venture Expo 2006



개장과 함께 입장하는 관람객들



개장식 후 박람회장을 둘러보는 내빈들



개장식 직후 관람객들이 10만여평의 야외 꽃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 개장 · 개막행사



개막선언을 하고 있는 유덕준 충남지사 권한대행

2006년 4월 28일 오후 1시 30분 충남국악단의 국악가요 '산아 산아 계룡산아' 공연으로 '2006 벤처농업박람회'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경과보고가 끝나자 유덕준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이 개막을 선언했다. 유 권한대행은 "2006 벤처농업박람회는 농업은 물론 생명공학과 정보기술, 그리고 환경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상생과 화합의 한마당"이라며 "농업의 소중함과 무한한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금의 농업위기를 돌파하는 힘찬 원동력이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주요 인사들이 박람회 시작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자 아름다운 불꽃과 화려한 오색종이가 날리며 축제 분위기를 돋웠다. 크로스오버 일렉트릭 퓨전국악그룹인 '황진이', 중국기예단, 벨리댄스팀의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내빈들이 개막버튼을 누르고 있다



개막식 후 전시장을 둘러보는 내빈들





충청남도국악단이 국악가요를 부르고 있다



밸리댄스



충청남도국악단 공연



중국기예단의 돌리기 묘기



중국기예단의 아크로바틱



충청남도국악단 공연



개막식 공개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크로스오버 일렉트릭 퓨전국악그룹 '황진이'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AVEX관 *아벡스관

농업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소개한 명예의 전당, 농업과 문화존, 농업과 과학존, 농업과 예술존, 함께하는 벤처농업존으로 구성됐다. 명예의 전당에는 문익점 · 우장춘 등 우리농업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과 업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기능성농산물을 개발한 인물 등 10개 분야의 스타농업인, 충남의 역대 농어촌발전대상 수상 농업인도 소개됐다. 농업과 문화존에는 농업축제와 세시풍속을 주



제로 전통문화의 지속보전을 위한 새로운 문화컨텐츠를 전시했다. BT · IT 기술을 접목, 미래의 농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모습을 보여준 곳이 농업과 과학존이다. 전통과 멋이 가득한 생활소품들과 농업을 소재로한 유명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 곳은 농업과 예술존. 함께하는 아벡스존은 아벡스관의 설립배경과 목적 유명벤처농산물이 전시 되었고 충청남도의 지역별 특산품이 소개되었다.



관람객들이 미래농촌 가상체험을 하고 있다



벤처농업 설명을 보는 농민들



관람객들이 미나리를 보고 있다



유리바닥에 전시된 농산물을 관람하는 외국인들



태양열로 작동하는 잠자리 로봇을 보며 신기해 하는 어린이들



명품벤처농산물 전시장



명품벤처농산물 전시장



청상추



치커리







*1 / 부목(富木)

*2 / 희망에 대하여

*3 / 아들에게 부목(富木)에 대해 설명해주는 어머니



생명의 나무







*1 / 농업과 문화 세시풍속 종이인형

*2 / 추수

*3 / 전통의상을 보고있는 관람객들

*4 / 식물공장에서 기념촬영하는 외국인들

*5 / 휠체어를 탄 노모와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6 / 아벡스관은 이상적인 미래농업을 보여줬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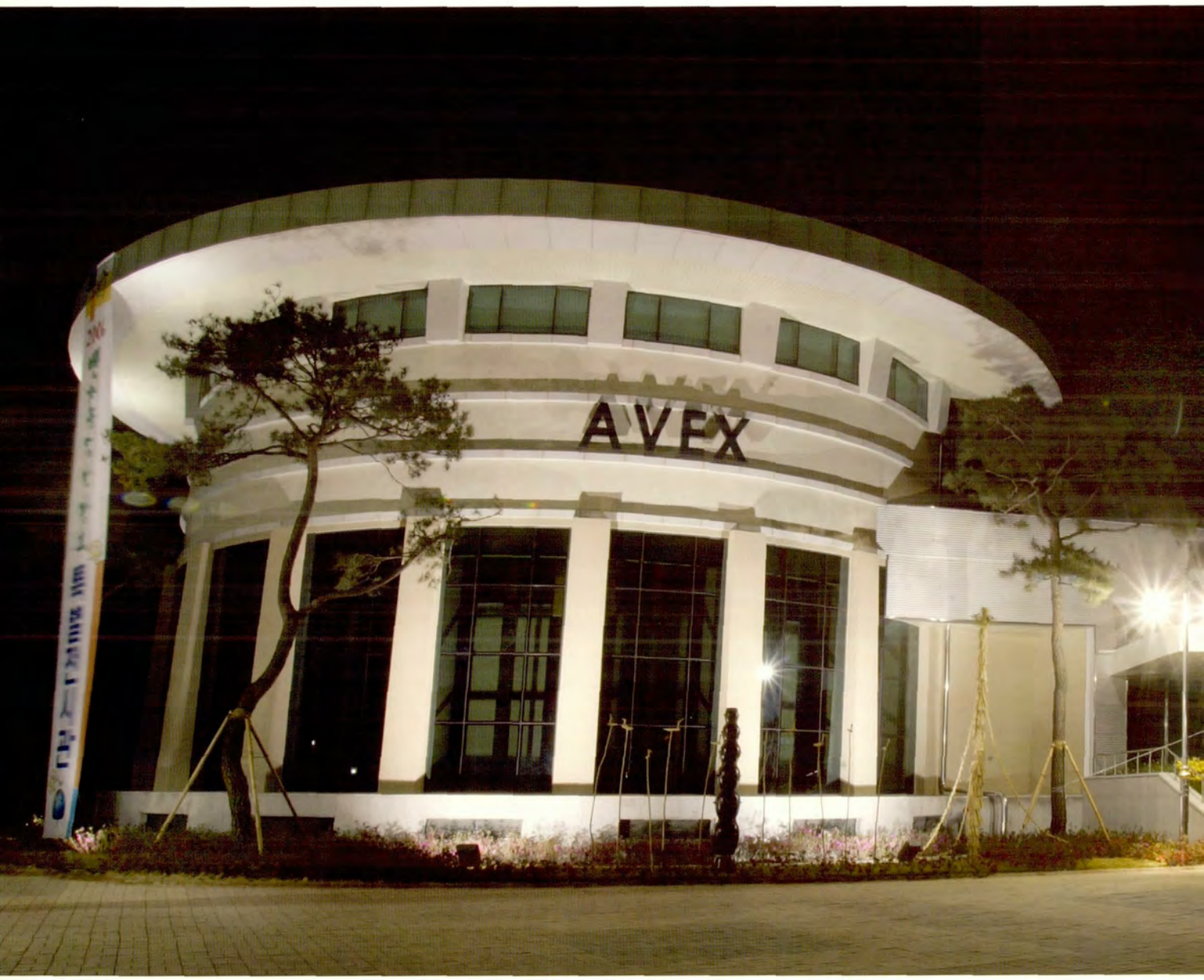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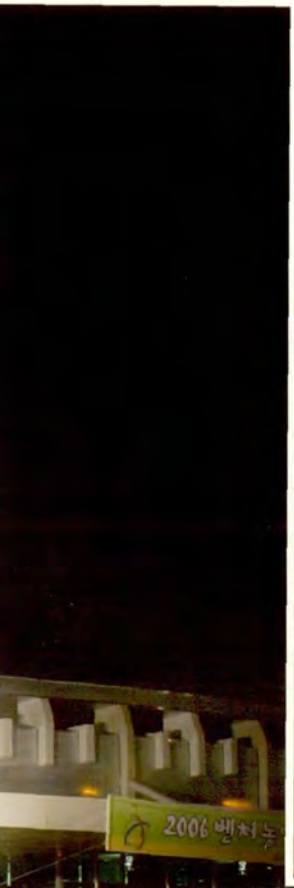
⑥




VEX



아벡스관 야경







아벡스관 마당에서 떡메치기 체험이 펼쳐졌다



초록농업관

게이트존 · 명품존 · 어메니티존으로 구성됐다. 게이트존은 위기의 농업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미래농업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농업의 위기, 농업의 돌파구, 나아갈 길, 새로운 신바람 등으로 주제를 정했다. 명품존에서는 국내외 농업명품이 전시됐다. 주제별로 명품농산물을 전시했으며 벤처농업 명예의 전당도 마련했다. 어메니티(Amenity)는 21세기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 부상되고 있다. 출구에 마련된 '희망나무'에는 가지가 휠 정도로 수만 개의 '희망 · 소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관람객들로 하여금 희망 · 소원 따위를 적어, 매달도록 한 것이다.



입구에 설치된 영상물을 보고있는 관람객



녹용을 사용한 제품



도라지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충남 지역 명품 농산물



아가리쿠스



명품사과



한국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물



어린이가 전통방식의 콩 계량 방법을 체험하고 있다



소원을 붙이고 있는 관람객



명품 녹차 제품



소원나무는 박람회 내내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었다


조록농업관
Green Agriculture Pavilion
입구
Agriculture
Venture
EXPO 2006



신기술개발관

충남의 신품종 · 신기술존, 이색식물 · 접목체험존, 한국농업기술존으로 나뉘어 관람객을 맞았다. 이색식물로는 고추 · 가지 · 토마토(장기식물), 호박류 · 미모사 · 극락조화 · 나팔꽃(관상식물), 토마토+감자 · 무+배추 · 땅콩+콩(접목식물) 등을 선보였다. 충남의 신품종 · 신기술존은 지역특화작목



과 고부가가치가 있는 신기술을 전시, 벤처농업의 단면과 그 가능성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색식물관은 충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접목식물과 이색식물이 전시됐다.



전시장을 둘러보는 관람객들



사진과 함께 전시된 이색작물









딸기 / *1

색동호박 / *2

가지나무 / *3

양무추(좌), 무추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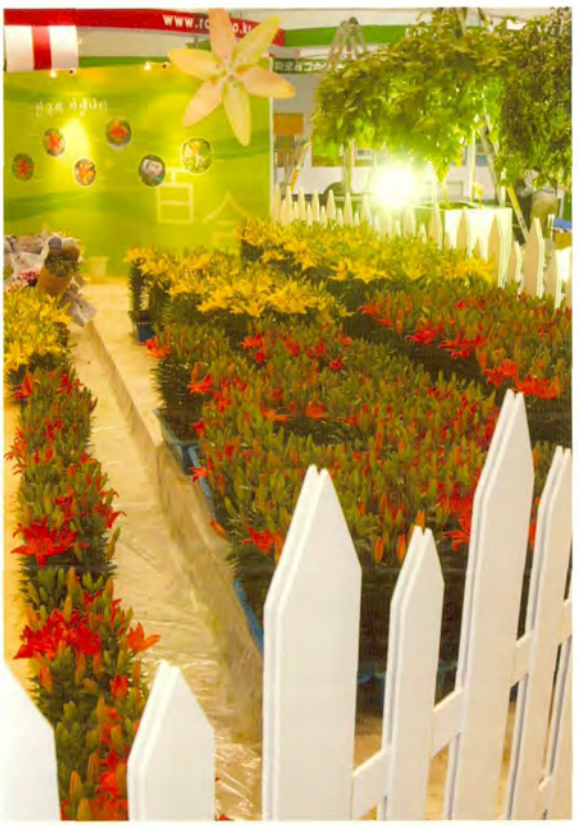






신기술개발관에서 가장 인기를 끈 컬러누에고치





백합전시장



구기자 술



구기자 드링크



구기자 엿





신기술관은 5개 주전시관 중 관람객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전시관이었다



희망농업관

벤처농업경연대회에서 입상한 12개 업체의 상품이 전시됐다. 자연은 무엇이든 상품화가 가능하며,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는 점이 공통점이었다. 하늘호수는 우리나라 자연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뿌리 · 나뭇잎 · 열매 등을 전통옹기에서 자연 숙성 · 발효시킨 자연한방제품을 개발했다. 음용은 물론 화장수 · 비누로도 상품화했다. (주)신지는 순수자연 육종기술로 쌀눈 크기가 일반현미보다 무려



4.4배나 큰 거대배아현미를 선보였다. (주)강화명품은 강화도 노지황토에서 유황으로 재배한 순무를 초겨울에 수확, 일체의 첨가물 없이 순무만을 갖고 저온에서 농축·살균한 주스와 환을 선보였다. 이밖에 떫은 맛을 없앤 감, 마시는 청국장, 연꽃차·허브·매실 등을 상품화해 성공한 사례들이 전시됐다.


한국스테비아(주)
Innovation Technology
BEST


삼박골 명품버섯
2차 식품가공
·청운대와 기술개발협약
·표고버섯 음료개발
·OEM생산, 비용절감
·생산설립 지역내 생산
·고량버섯 상표등록
·시기별 계획생산
삼박골
인 증 서



씨눈이 붙어있는 쌀을 홍보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관람객


벤처농기업성공모델
참샘골농원
삼박골표고버섯





희망농업관은 벤처농업경연대회에서 입상한
12개 업체의 상품도 전시했다



친환경농업관

벤처농업의 한 장을 차지하는 친환경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사례와 벤처농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천적을 이용해 해충을 방제하는 기술, 미생물을 이용해 병충해를 방제하는 기술, 친환경적으로 잡초를 관리하는 기술 등의 친환경농법이 소개됐다. 또한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농업에 이용하는 방법도 관람객들의 눈길



을 끌었다. 친환경농업 넓히기 코너에는 인삼 · 장뇌삼 · 산삼이 비교전시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오리들이 해충을 잡아먹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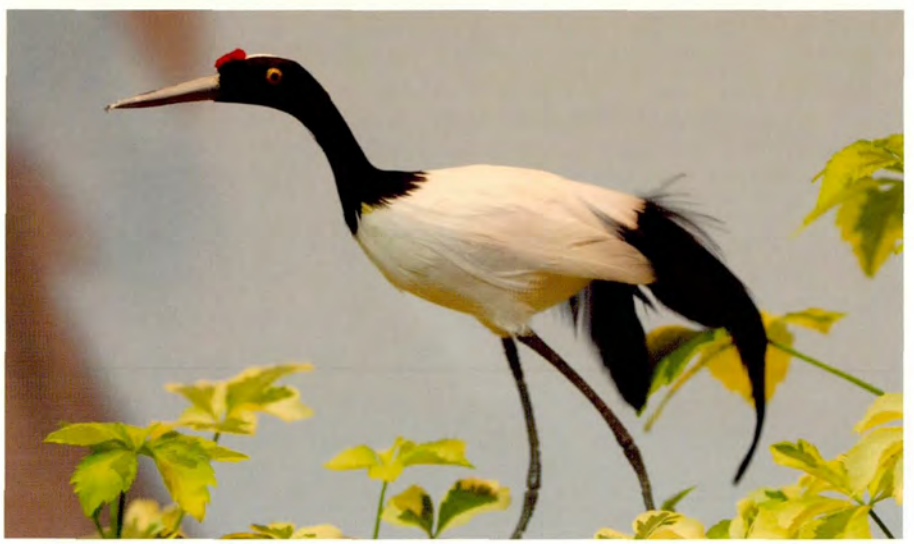




다양한 농법을 소개한 친환경 농업관







친환경농법에 도움이 되는 조류





짚으로 만든 전통공예품



다양한 종류의 버섯전시 코너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녹각 · 영지버섯을 가르키고 있다.)



갈색팽이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



미백느타리버섯



복령



신령버섯



양송이(백색)



양송이(크림)



영지



장생녹각영지



동충하초


첨단농업관



꽃과 과학, 문학, 예술이 어우러지는…

2006 벤처농업박람회

Agriculture Venture Expo 2006

:: 시 · 군의 날 81

논산시의 날
아산시의 날
보령시의 날
천안시의 날
금산군의 날
태안군의 날
서산시의 날
공주시의 날
부여군의 날
서천군의 날
청양군의 날
연기군의 날
예산군의 날
계룡시의 날
홍성군의 날
당진군의 날

:: 식물터널 98
:: 분재 전시관 100
:: 특색식물 · 향기식물 전시관 102
:: 기업홍보 전시관 110
:: 어린이날 행사 114
:: 생활체험마당 120
:: 정크아트 124
:: 동물가족 체험장 129
:: 도우미 · 자원봉사 132
:: 공예 138
:: 3D 입체영화 139
:: 학술행사 140
:: 박람회 이모저모 142



바디페인팅을 받기 위해 줄서 있는 관람객들



영지차 시음



딸기케익 만들기



:: 논산시의 날

논산시는 우수농특산물 전시 · 판매장 앞에 전국 최고의 특화작목인 논산딸기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세우고 조형물 주변에 딸기를 심어 이미지를 높였다. 전시판매한 우수농특산물은 셀레늄딸기 · 수박 · 완숙토마토 · 버섯류 · 델라웨어포도, 벤처농특산물은 딸기를 주재료로 만든 와인 · 한과 · 고추장 · 김 · 엿 등이다. 초록공연장에서 관광객을 즉석에서 초청해 노래자랑을 벌였다. 참가자 전원에게 지역특산품을 증정했다. 또 김동주 · 장옥경 · 유동하 등 향토가수를 초정해 행사 분위기도 고조시켰다. 전통문화마당에서는 38년 전통의 딸기를 홍보하기 위한 딸기퍼포먼스를 벌였다.



외국인도 좋아하는 국산치즈



국산치즈 나도 한입



아산시립합창단의 합창



:: 아산시의 날

아산시는 상징조형물로 거북선과 아산배를 선정했다. 전시 · 판매된 우수농특산물은 아산 맑은쌀 · 아산배 · 친환경농산물 · 사슴(녹용) · 사과였으며 벤처농특산물은 천년초 · 포도관련제품 · 사슴제품 · 기능성쌀이었다. 초록공연장에서는 공연으로 흥을 돋웠다. 공연은 아산시립합창단의 합창, 온궁풍물단의 풍물,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 등으로 진행됐다. 아산시가 벌인 퍼포먼스의 주제는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선정된 '우유'였다. 현장을 방문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즈만들기 체험행사가 인기였다. 목장의 잉여우유와 모형젖소를 이용한 젖짜기 체험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 행사에는 연세우유와 아산축협이 참여했다.



관람객들이 머드체험을 하고있다


버섯요리 시식


주산산업고 농악동아리 '태극풍장'의 공연



:: 보령시의 날

'머돌이'와 '머순이'가 관람객을 맞은 곳은 보령시 특산물전시판매장이다. 판매장 내부는 머드제품 등이 주로 채워졌다. 배경으로 설치된 돛단배와 대천해수욕장 전경이 관람객들에게 시원함을 선사했다. 보령시는 우수농특산물로 은행한과 · 무화과식초 · 사현포도주 · 버섯한우 · 고급육 · 양송이버섯을 내놨다. 벤처농특산물은 자색고구마음료 · 참시원 · 머드제품 · 알로에 희귀섬유다이어트 등이다. 초록공연장에서 벌어진 주산산업고 농악동아리 '태극풍장'의 공연은 관람객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농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소고잽이의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공연이 일품이었다. 폐광을 이용해 생산한 버섯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충남 국악관현악단 공연





배껍질 길게 깎기 대회



:: 천안시의 날

천안시는 횃불낭자 · 독립기념관 · 능수버들을 상징조형물로 썼다. 특산물인 신고배 · 거봉포도 · 개구리참외 등과 고유브랜드인 흥타령쌀 등의 이미지도 합성해 천안시를 홍보했다. 우수농특산물로는 해드림쌀 · 신고배 · 봉지버섯 · 시설오이 · 개구리참외 등을 전시했다. 벤처농특산물로는 포도주 · 포도식초 · 아우내고추장 · 유기농콩나물 · 길경차를 내놨다. 초록공연장에서는 충남국악관현악단이 국악의 크로스오버적인 '고구려의 혼'을 선보였다. '창룡아리랑' '달빛항해' '신모듬 3악장' 등이 그것이다. 전통문화마당에서는 대표적 농산물인 배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배 · 배즙시식회와 배껍질 길게 깎기, 배품종이름 맞추기 등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



약초썰기 대회



금산풍물 판굿



떡메치기



:: 금산군의 날

인삼의 고장답게 인삼을 조형물로 정했다. 주변은 전통인삼포와 개량인삼포 등을 비교전시하는 한편 인삼분과 약초꽃으로 주변을 조경해 인삼의 고장임을 한껏 자랑했다. 우수농특산물은 인삼 · 들깻잎 · 인삼돼지고기 · 홍삼액 · 칡즙이었다. 벤처농특산물으로는 홍삼한과 · 오미자액상차 · 토종꿀 · 홍삼당귀사탕 · 감자떡 등을 선보였다. 중고생 이상으로 구성된 청소년토리패가 선반공연 · 앉은공연 · 설장구공연 등 금산풍물판굿을 선보였다. 퍼포먼스의 주제는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인삼의 종주지 금산이었다. 인삼연구회는 인삼주 제조를 시연하고 시음기회도 제공했다. 홍삼음료도 맛볼 수 있는 자리였다.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풍년제



마늘피자를 시식하는 도우미들





태안군 생산 농수산물



:: 태안군의 날

특산품인 마늘과 화훼로 조형물을 설치했다. 벼가리대와 솟대 · 화훼류로 주변을 장식해 우아함을 자아냈다. 우수농특산물은 황금빛노을쌀 · 갯바람건고추 · 태안6쪽마늘 · 장수검정콩 · 간월도어리굴젓을 출품했다. 벤처농특산물로는 마늘가공제품(마늘주 · 차) · 호접란 · 참취요리 · 방풍 · 화훼류(장미 · 백합)가 인기를 끌었다. 벼가리마을의 풍물농악단이 공연을 맡았다. 이 공연은 벼가리대 오곡주머니 달아세우기, 제상, 농악놀이, 풍년제, 동아줄 잘라서 나눠주기 등으로 진행됐다. 마늘을 이용한 포퍼먼스는 마늘이 단순한 양념으로 인식된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해주었다.



감자 많이 깎기 시합



전통가락 연구회의 한마당 잔치



마애삼존불과 해미읍성 부스



:: 서산시의 날

서산6쪽마늘을 상징조형물로 삼아 캐릭터를 제작했다.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마애삼존불상과 해미읍성을 선보였다. 우수농특산물로 서산6쪽마늘 · 홍화제품 · 어리굴젓 · 참샘골호박 · 새댁김치가 돋보였다. 벤처농특산물은 길러먹는 채소밭 · 오색젤리 · 전통장류 · 들국화주 · 생강한과 등이 관람객의 발길을 끌어 모았다. 마당패뜬쇠예술단과 서산시 전통가락연구회가 신명나는 한마당잔치를 벌였다. 비나리도 공연하고, 승무도 추고, 피리도 불고, 웃다리 판굿도 벌였다. 퍼포먼스는 감자를 주제로 했다. 팔봉산 감자가 서산을 대표할 만한 작물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감자 많이 깎기, 감자범벅만들기, 감자피부미용체험의 장도 마련했다.



오이피클 맛보기



공주를 대표하는 '예인촌' 의 공연



오이쥬스 시음



:: 공주시의 날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관과 특산품인 오이 · 정안밤 · 표고버섯 등을 캐릭터로 내세웠다. 우수농특산물로 정안밤 · 한방오이 · 신풍풋고추 · 은행란 · 표고버섯을 선정했다. 벤처농특산물은 밤가공제품 · 기능성국수 · 누에분말 · 계룡백일주 · 벌떡주(대나무술)가 흥미를 자아냈다. 공연은 예인촌이 맡아 '터' 를 선보였다. 예인촌은 공주를 대표하는 공연단체로 농민들의 삶을 나타내는 향토소리 특징으로 하고 있다. 터다지는 소리는 농사일을 마치고 백중놀이에 나온 마을 남녀노소가 즐기던 풍장과 소리의 어울림이다. 오이는 34년간 공주를 대표해온 특화작목이다. 관람객들은 오이 마사지 효능을 체험하고 오이 얇고 길게 깎기 놀이를 즐겼다.



방울 토마토 시식



양송이 캐릭터와 춤추는 도우미



충남국악단의 부채춤



:: 부여군의 날

백제금동대향로에서 따온 '금동이'를 상징물로 관람객을 맞았다. 주변은 미니장미와 인동초로 장식했다. 우수 농특산물로는 방울토마토 · 굿뜨래수박 · 양송이 · 밤 · 표고버섯 등을 선보였다. 벤처농특산물은 샘골메주 · 영구전통한과 · 해동백제청국장 · 아가리쿠스 · 도토리묵가루 등이 인기였다. 충남국악단의 국악한마당이 관람객들의 흥을 돋웠다. 가야금병창 · 부채춤 · 사물놀이 · 경기민요 · 낙화암운곡에 관람객들도 어깨춤을 췄다. 전국생산량의 8%를 차지하는 방물토마토가 퍼포먼스의 주제였다. 부여군은 1960년대부터 방울토마토 재배를 시작해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를 자랑하고 있다. 토마토 주스만들기체험 행사도 준비했다.



서천군의 다양한 특산물



한산모시 판매장



서림국악원의 승무



:: 서천군의 날

서천군의 캐릭터인 '모시몬'을 상징조형물로 제작해 설치했다. 주변조경은 야생화와 안개꽃으로 처리했다. 철새도래지와 모시제조 과정을 실사처리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우수농특산물은 한산모시공예품 · 서천냉각쌀 · 재래김 · 한산소곡주 · 서천김과 자하젓 등이 관람객의 입맛을 자극했다. 벤처농산물인 매실분말제품 · 죽염장류(된장 · 간장) · 청국장환 · 엄나무엑기스 · 동백꽃떡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초록공연장에서는 서림국악원이 전통민속 종합예술로 관람객의 박수를 받았다. 풍물놀이 · 전통무용 · 가야금병창 · 승무 등을 보여준 서림국악원은 지역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한산소곡주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에는 무료시음에 이어 제조과정 전시 프로그램도 있었다.



섹스폰 연주



구기자 약식 만들기



매운 고추로 장식한 청양군 부스



:: 청양군의 날

초가집에 매운고추… 청양군 전시 · 판매장의 상징조형물이다. 주변을 장식한 고추화분 · 화초용고추 · 건고추는 청양군이 고추의 고장임을 인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우수농특산물은 구기자한과 · 청양고춧가루 · 잡곡류 · 생맥산 · 화훼(덴파레)가 나왔다. 벤처농특산물은 토종닭 · 기능성국수류 · 둔송구기주 · 구기자엑기스 · 청양고추장이 눈길을 끌었다. 청양군은 특이하게 택견을 선보였다. 택견체조단이 공연을 맡았다. 장평면의 풍물놀이패는 전통농악놀이를 곁들였다. 구기자하면 청양이듯, 구기자를 이용한 이벤트가 풍성했다. 구기자 멀리 뱉기, 항아리에 불어넣기, 과녁 맞추기 등이었다. 시상품도 구기자로 만든 한과였다.



장승제



오행초 복숭아 찐빵



장승제에서 소원을 비는 관람객들



:: 연기군의 날

연기군은 복숭아를 상징하는 '으뜸이'를 상징조형물로 삼았다. 우수농특산물은 복숭아가공제품 · 청결고추 · 살구식초 · 한방토마토 · 인삼배였다. 벤처농특산물로는 염색소품 · 구절초꽃차 · 토다메감자 · 오행초가공제품 · 아미노젠 등이었다. 초록공연장에서는 연기소리예술단이 경기민요 · 남도민요 · 병창 등의 민요를 들려주었다. 조치원여중 사물팀은 난타를 공연했다. 퍼포먼스는 연기군이 개발한, 구절초를 이용한 꽃차의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구절초 꽃차 무료 시음회를 가졌으며 구절초를 이용한 차의 효능에 대한 설명회도 벌였다. 다식체험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사과와인 시음



사과 돼지고기 시식



어린이 밸리댄스



:: 예산군의 날

특화작목인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 아예 실물 사과로 탑을 쌓아 상징조형물로 삼았다. 우수농특산물은 껍질째 먹는 사과 · 의좋은 형제 쌀 · 황토염색제품 · 창소쪽파 · 꽈리고추였다. 벤처농특산물로는 삼박골표고버섯 · 전통예산옹기 · 팽이버섯 · 삽다리잼 · 삽다리 더덕을 내놨다. 민족음악원은 예향제로 초록공연장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의 꿈과 희망의 미래를 주제로 가족 중심의 흥겨운 테마공연이 기획됐다. 백송타이거시범단, 유원숙에어로빅시범단의 공연에 이어 드리프터스의 비트박스 · 브레이크댄스도 큰 박수를 받았다. 예산하면 사과다. 사과와인 제조시연과 와인 시음회가 있었다. 껍질 채 먹는 사과는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더해줬다.



각설이가 컬러피망을 홍보하고 있다



군인들의 마술시범



군인 가수도 한곡



:: 계룡시의 날

계룡시 심벌인 '용도령'을 조형상징물로 썼다. 우수농특산물로는 밤호박 · 딸기 · 카네이션 · 토마토 · 쌈채를 진열했다. 벤처농특산물로는 물엿 · 꿀 · 토속된장 · 웃세트 · 토속음식 등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군사도시답게 계룡시는 군악대와 의장대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시범공연은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고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충분했다. 컬러피망(파프리카)과 토속엿을 퍼포먼스의 주제로 선정했다. 엿을 이용한 '엿치기'가 성인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다. 어린이에게는 또 다른 민속놀이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우승자에게는 즉석상품도 나눠줬다. 보조행사로 3대 이상의 가족대항 윷놀이를 진행했다.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무료시식



홍성군 생산 농 · 수산물



한성준 전통춤학교 공연



:: 홍성군의 날

친환경농법의 하나인 오리농법을 형상화한 상징조형물을 세웠다. 우수농특산물은 오리농쌀(흑미) · 오색미 · 유기축산물 · 토굴새우젓 · 보리고추장 등이 인기를 끌었다. 벤처농특산물로는 사과스낵 · 구아바비누와 차 · 건두부 · 꽃음식 · 떠먹는 요구르트 등을 전시했다. 홍성군 출신으로 한국전통무용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한성준의 예술혼을 선보였다. 한성준전통춤학교가 담당했다. 홍성군생활개선회가 태평무 · 승무 · 바라춤 등의 춤사위를 선사했다. 다양하게 가공된 쌀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홍성군이 무료시식에 내놓은 돼지고기 더덕갈비찜과 쌀동동주 등이 인기였다.



농악공연



거북놀이



다트 이벤트



쌀로 만든 요리 시식



:: 당진군의 날

해나루쌀의 캐릭터인 '쌀동자'를 선보였다. 조형상징물 주변을 야생화와 관상수 등으로 처리해 친환경적인 상품임을 강조했다. 우수농특산물로는 해나루쌀 · 꽈리고추 · 황토감자 · 갯바람사과 · 느타리버섯이 선정됐다. 벤처농특산물은 대마 · 삼베제품 · 면천두견주 · 동충하초 · 초락도약쑥 · 허브차가 뽑혔다. 벼가리대 거북놀이 보존회는 송악면 가학리 일원에 전승되는 전통민속놀이와 풍물놀이를 선사했다. 벼농사 최고군으로서 당진군은 퍼포먼스를 해나루쌀 홍보기회로 삼았다. 쌀뻥튀기를 시연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모으고 쌀아이스크림으로 흥미를 끌었다. 해나루쌀을 무료로 나눠준 뒤 이 쌀로 만든 각종 요리 제공으로 마무리했다.

식물터널





:: 식물터널

벤처농업박람회장의 볼거리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작품' 중의 하나였다.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주최 측에 문의가 쇄도했다. 자치단체나 기업체, 대형식당가 등이 만드는 '비법'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또 설치비는 얼마며 씨앗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들이 주된 질문이었다. 물론 박람회장을 찾아온 관람객들이 반드시 들러 촬영하며 감탄을 자아낸 곳이었다. 식물터널은 색동호박 · 조롱박 · 토감(토마토+감자)등으로 터널을 구성한 주최 측의 야심작 중 하나였다.









분재 전시관

:: 분재관

한국분재조합 충남도지부가 벤처농업박람회를 계기로 제1회 분재전을 마련했다. 150평 규모에 노간주나무 · 주목 · 느릎나무 · 소사나무 등으로 된 희귀작품을 전시했다. 직간(直幹) · 현애(懸崖) · 반간(蟠幹) · 취류(吹流) 수형 등 다양한 모양의 분재를 선보였다. 직간은 줄기 하나가 곧게 솟은 모양을 말한다. 현애는 벼랑 끝에 나뭇가지가 매달린 모습을 띤다. 반간은 마치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 취류는 가지가 한쪽 방향으로 기운 분재를 가리킨다. 한국분재조합 충남도지부는 현장에서 분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했다. 관람객들에게 나눠준 안내서에 물주기와 분갈이 · 거름주기 · 철사걸이 · 배장장소 등 자세한 분재관리방법을 담았다.











특색식물 · 향기식물 전시관





:: 특색식물

충남 각 시 · 군의 특화작목을 소재로 4계절을 표현한 대형화분들이 전시됐다. 천안시가 출품한 배꽃과 거봉포도착색과, 배나무 분재가 입구에서 관람객을 맞았다. 보령시는 4계절 무화과 화분을 선보였다. 서산시는 6쪽마늘과 생강화분을 단계별 품종별로 전시했다. 금산군은 인삼의 사계절을 표현한 작품을 냈다. 서천군은 모시풀 · 야생화 · 초화류 분경작품을 돋보이게 진열했다. 이밖에 무추 · 토감 · 가지감자 등도 출품됐다. 또 조직배양딸기 · 인삼홍숙분 · 복숭아화분 · 수출가지 · 단고추분화 · 청양고추 · 구기자화분 등도 전시됐다.







:: 향기식물

국내 · 외에서 수집된 각종 허브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이었다. 감상과 함께 향기체험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구성했다. 엣센스오일과 차류 · 화장품 등 허브제품이 전시됐으며 무료 체험장도 갖췄다. 향기식물관에서는 쟈스민 · 보리지 · 세이즈 · 민트 · 제라늄 · 로즈마리 · 라벤다 · 시계초 · 에키네시아 등 50여 종의 향이 관람객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다. 가정원예관에는 가정원예 콘테스트 작품과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공기정화 식물을 대거 선보였다.












ASTRA
Canon


꽃과 자연이 아름다운 충절의 고장 충남








충절의 고
(사)한국
충남도지회


실내공기 정화식물 전시관

기업홍보 전시관

:: 중소기업홍보관

기업들의 농산물 생산기술과 농자재 · 농기구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이다.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는 제주도에서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을 위한 연구성과를 전시했다. (주)화신이앤비는 기존 소독제의 내성문제와 소독, 악취제거를 한번에 해결한 생체친화적 신물질인 '크린앤파인'을 홍보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은 '배추제놈프로젝트'를 소개했으며 (주)강화명품은 강화순무를 재료로 한 순무즙 · 순무환 등을 전시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쌀살이
벼대가
도복에
식미평가


CGTS.co.kr
제일함석
심경제초기




한방방울토마토
한방토마토






다 인 농 산
신개념 활성수정적 시스템


창 전통민들레
고추장
명가


아그리포닉스
Agriponics
Technique agriculture

어린이날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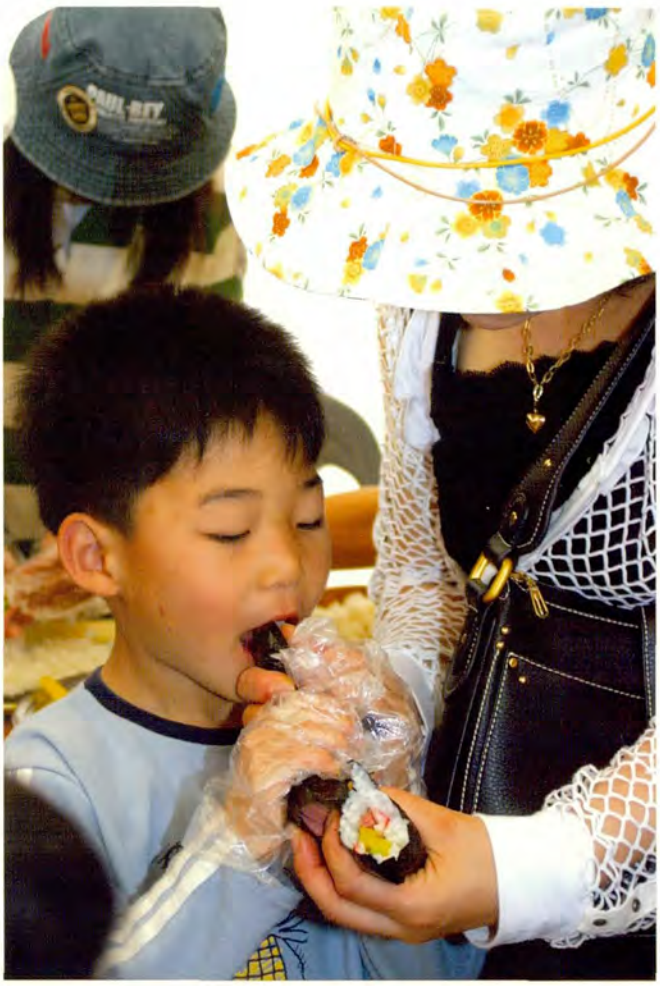
:: 기념행사

(사)한국BBC대전충남연맹 예산지회 주관 아래 특별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입장한 학생에게는 인쇄풍선과 행운권이 선물로 돌아갔다. 오전 10시 30분까지 사물놀이(예산여상) · 에어로빅(유원숙에어로빅) · 어린이국악(보육시설연합회) · 태권도(호키태권도) · 스포츠댄스(유원숙에어로빅)가 어린이들을 맞았다. 이어 개그맨 장동민 · 홍인규가 함께 하는 개그콘서트와 팬사인회가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다. 마술공연과 즉석장기자랑 등이 이어졌다. 상설마당에서는 요술풍선만들기와 종이접기체험이 준비됐다. 가족놀이마당에는 풍선아트 · 페이스페인팅 · 팔찌만들기 · 손수건 천연염색이 마련됐다. 12시부터는 예산소방서가 준비한 구조장비 · 부목사용 · 심폐소생술을 체험할 수 있었다.










종이접기 체험마당
- BBS예산지회, 예산군보육연합회 -




처농업박람회
e Venture Expo 2006








Agriculture Venture Expo 2006









생활체험마당



:: 체험마당

전통문화체험마당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제기차기 · 공기놀이 · 딱지치기 · 윷놀이가 펼쳐졌다. 재미있는 표정과 동작을 연출한 허수아비들이 아이들을 반겼다. 생활문화체험마당에서는 추사체와 짚공예를 체험할 수 있었다. 장승깎기 · 옹기만들기 · 선인장접목체험도 재미를 만



끽하게 했다. 여러 가지 조류 · 토종가축 · 파충류 · 열대어 · 곤충 · 애완동물이 전시됐다. 앵무새와 사진 찍기, 아기새에게 먹이주기도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했다.






농어민의날대축제



정크아트

:: 정크아트

폐농기구와 폐농기계를 이용해 만든 정크아트 50여점을 전시했다. 폐품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대표작은 '소치는 아이'다. 소를 타고 가며 컴퓨터로 농장을 관리하는 유비쿼터스 농업을 표현한 작품이다. 폐품이 돼버린 농기구와 농기계를 예술작품으로 변화시키듯 현재의 어려운 농촌의 현실도 벤처농업을 통해 멋지게 변모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정크아트에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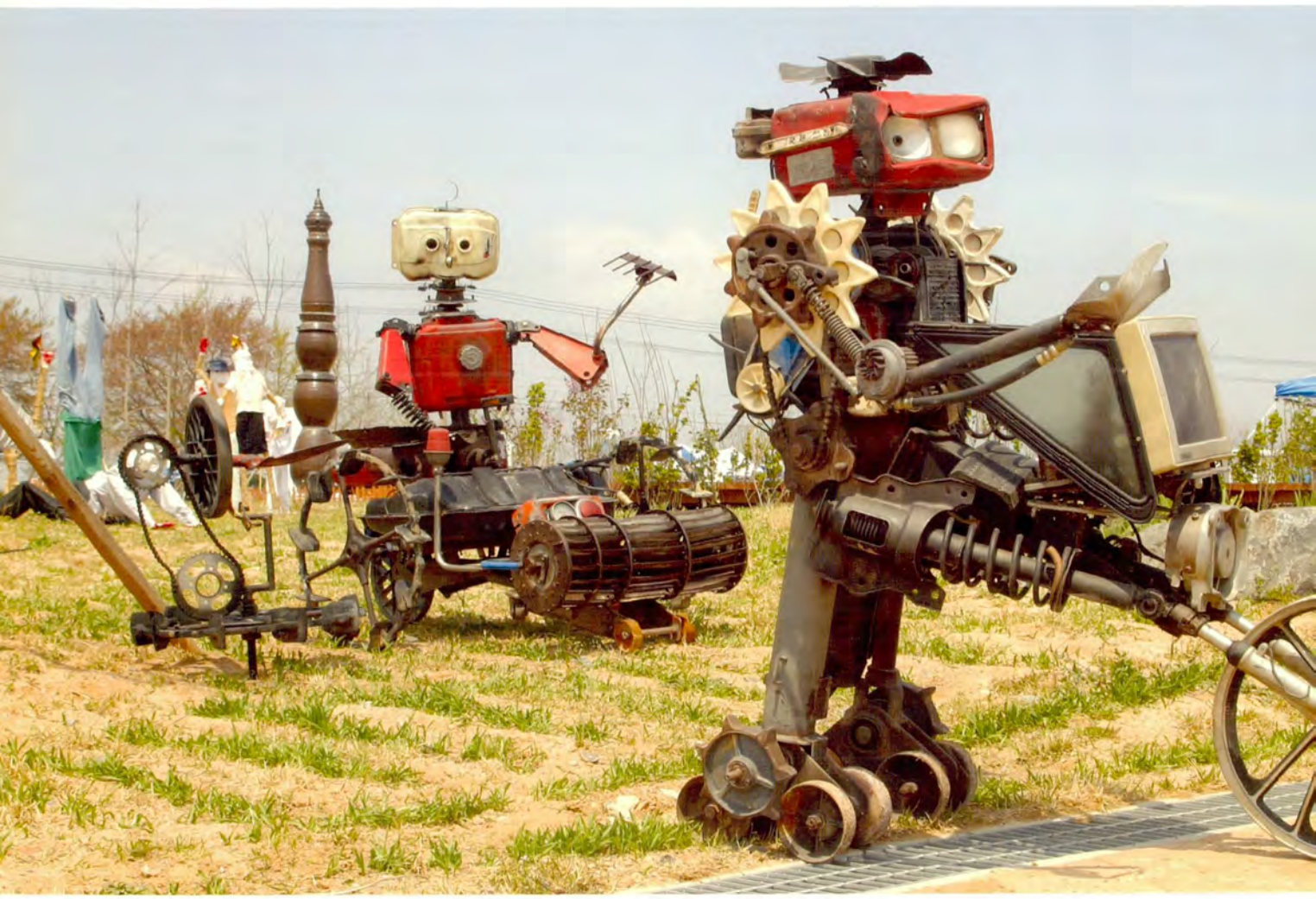





















식당

동물가족 체험장


2006 벤처농업박람회
Agriculture Venture Expo 2006
한국농업! 새로운 도전과 희망
동물가족체험장
체험
실내체











:: 동물가족 전시 · 체험장

특수가축 · 관상조류 · 희귀애완동물 · 애완동물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수가축으로는 유산양 · 염소 · 면양 · 토종돼지 · 토끼 · 햄스터 · 기니피그 등을 선보였다. 관상조류는 오골계 · 금수남 · 은세종 · 자보 · 공작 · 원앙 · 천둥오리가 인기를 얻었다. 이밖에 희귀애완동물로 파충류와 양서류 · 곤충류 · 갑각류가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었고 치와와 · 푸들 · 시추 · 요크셔테리아 등의 애완동물이 인기를 독차지했다.





:: 도우미

박람회장의 꽃! 하양 · 빨강의 유니폼은 단정했고, 자상하고 상냥한 안내는 관람객들의 미소가 절로 피어나게 했다. 공주영상정보대학 스튜어디스과 학생 24명이 도우미로 참여했다. 도우미들은 학교에서 갈고 닦은 친절과 예절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쏟아 부었다. 행사기간 동안 3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도우미들은 끝까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도우미들이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관람객들에게 전시관 안내를 하고 있다



전시장 위치를 알려주는 도우미



박람회장 주 게이트에서 입장권을 받고 있다


86







:: 자원봉사

벤처농업박람회는 예산에서 열린 행사 가운데 최대행사였다. 자원봉사자도 1일 125명씩 참가했다. 초기에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다. 하지만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자원봉사자들도 '노하우'가 쌓여 맡은 일을 척척 해냈다.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에 벤처농업박람회는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예산에서 전국 규모의 큰 행사에 참여한 것이 행운"이라며 "농업박람회에서 쌓은 경험은 예산에서 열리는 어떠한 행사라도 자신 있게 치러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공예





3D입체영화



:: 전통규방공예전과 입체영상 에니메이션 '큐빅스'

복지관 소강의실에 마련된 전통규방공예전도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기간 동안 열린 이 전시는 우리 고유의 전통생활 기술인 규방공예를 발굴 · 보존하고 관광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됐다. 규방공예를 생활공예로 확산시켜 전통규방공예의 소득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도 목적이었다. 이 전시에는 조각보 · 테이블보 · 노리개 등 전통규방공예 창작품 70여점을 선보였다.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단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은 입체영상 에니메이션 '큐빅스'였다. 가족과 우정을 주제로 한 어린이 로봇영화로 행사기간 동안 줄곧 어린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학술행사





벤처농업포럼, 농촌관광 심포지엄, IT · BT의 농업적 이용 세미나 등 다양한 학술행사가 벤처농업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박람회 이모저모

비가 내리는 중에도 2006 벤처농업박람회 관람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물장난이 즐거운 아이들





꽃씨 날리기 시합을 하는 아이들



주 전시장 입구의 장승



보리밭을 지나는 관람객들





야외정원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시원스러운 분수



화려한 색상의 솟대



튤립 정원



미래농촌 그리기 전시장



미래농촌 그리기 전시장 야경







솟대



21세기 한국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벤처농업박람회가 막을 내렸다.

35만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우리 농업의 가능성을 심어주었다.

벤처농업이 바로 위기의 우리농업이 추구해야 할 돌파구란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됐다.



꽃과 과학, 문학, 예술이 어우러지는…

2006 벤처농업박람회

Agriculture Venture Expo 2006

:: 2006 벤처농업박람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 2006 벤처농업박람회 범도민 지원단 위촉식
::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 설명회
:: 아벡스관 개막식
:: 박람회 성공기원 장승제
:: 농업 · 농촌 사진전
:: 벤처농업인 축제 한마당
:: 박람회장 진입 차량행렬



2006 벤처농업박람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봉사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교육



범도민 추진지원단 위원 위촉식에서 심대평(오른쪽) 충남도지사가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범도민 추진지원단 위원 위촉식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①



②



③

*1 /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단 벤처농업박람회 설명회

*2 / 아벡스관 개막식에서 내빈들이 개막테이프를 자르고있다

*3 / 2006 벤처농업박람회 성공기원 장승제



2006 벤처농업박람회 성공기원 장승제 풍물놀이



농업 · 농촌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벤처농업인 축제 한마당에서 농업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벤처농업인 축제 한마당에서 장기자랑하는 농업인들



박람회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차량정체가 심해지자 마음 급한 관람객들이 박람회장까지 걸어 가고 있다



박람회장 진입 차량행렬



벤처농업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의 차량들로 주차장에 빈틈이 없다